

주간 통일정세

2017-01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2.31	北, 김정은 올해 공식활동 132회 '최저'...2013년엔 212회(연합뉴스)
		北 김정은,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 혁명절 축전(연합뉴스)
		수소탄·무수단...北신문 선정 올해의 뉴스 1/3이 핵 관련(연합뉴스)
	1.1	北 김정은, 육성 신년사서 첫 양복차림...고개 숙여 인사(연합뉴스)
		北 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로 새해 첫 활동...리설주 동행(연합뉴스)
		北김정은,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연합뉴스)
		北김정은 신년사, 핵·미사일·남북관계·자력자강 방침(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조총련 의장에 새해 축전(연합뉴스)
		北, 신년사 통해 '남남갈등' 유도...사대매국세력에 투쟁(연합뉴스)
		北, 핵무장·재래전력 병행전략 의지...선제공격능력 부각(연합뉴스)
	1.2	北매체들 "김정은 신년사 높이 받들자" 주민 선동(연합뉴스)
		北선전매체, '김일성 中동북해방전쟁 지원' 책자 소개(연합뉴스)
	1.3	北 전종수 안명국, 조평통 부위원장으로 승진(연합뉴스)
		北김정은, 무수단 발사 잇단 실패로 첫 전략군대회 연기(연합뉴스) 北신문,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화적 환경(연합뉴스)
	1.4	北TV 신년공연에 '쿵푸팬더'...美애니캐릭터 대거 등장(연합뉴스)
		北, 연일 '신년사' 이행 독려...“대북제재 돌파 의지”(연합뉴스)
	1.5	가방공장 간 김정은...새해 첫 행보는 민생시찰(연합뉴스)
		北평양서 '김정은 신년사 이행' 군중대회...과업 철저 관철(연합뉴스)
		北, 김정은 신년사 이후 연일 대남 평화공세(연합뉴스)
北매체,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핵타격 수단 있어(연합뉴스)		
1.6	北 최룡해, 33개월만에 현장시찰...2인자 인정(연합뉴스)	
	北 최룡해,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평양 출발(연합뉴스)	
	北 신포에 1만급 잠수함 건조 가능한 독 건설(연합뉴스)	
	노동신문, 김부자 찬양문구에 '수령·영도자' 경칭 추가(연합뉴스)	
	北 4차 핵실험 1주년...첫 수소탄 시험 완전성공한 날(연합뉴스)	
경제	1.4	김정은생일 도루묵 선물 소문 '말짱 도루묵'...가격만 폭락(연합뉴스)
		中, 북한 석탄수입 재개한 듯...北선박 다수 포착(연합뉴스)

		北, 가공품·서비스 수출 확대해야...제재우회 시도(연합뉴스)
		日경찰, '싱가포르 우회 대북수출' 적발...수사 중(연합뉴스)
	15	北, 군수기지 자강도 주민까지 외화벌이 파견(연합뉴스)
		北, NLL인접 강령에 농수산물 가공단지...해외투자 유치(연합뉴스)
	16	유엔제재 물린 北, 中·대만기업과 위화도 공단조성 합의(연합뉴스)
	12.31	北, 차량번호판 중국식 교체...대중관계 등 다중포석(연합뉴스)
사회 문화	11	北, 대규모 불꽃놀이로 새해 출발(연합뉴스)
		北 지방시장에 주차장...주민들 차 타고 장 보러 다녀(연합뉴스)
	12	北, 1~3일 특별경비기간 설정...적대분자 소탕 지시(연합뉴스)
	14	지난달 북 당국 식량배급 1년 중 최대(자유아시아방송)
		FAO "北, 동아시아 최대 삼립 훼손국...사막화 심각"(연합뉴스)
	15	北주민 카드 사용 증가...지방에 ATM 추가 설치(연합뉴스)
	16	북한 작년 식량 배급량 유엔 권장량 절반 남짓(연합뉴스)
		北부유층, 6천달러씩 들여 살림집 한국식으로 리모델링(연합뉴스)
외교 국방	11	北, '김정은에 연하장' 시진핑보다 푸틴 먼저 호명(연합뉴스)
		北 김정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마감 단계(연합뉴스)
	12	美 'ICBM 마감단계' 주장 김정은에 "대가 따를 것" 경고(연합뉴스)
		北 SLBM, 1t 핵탄두 탑재시 남한 전역 사정권(연합뉴스)
		軍, 北 ICBM 관련 특이동향 없어...기술수준 평가 일러(연합뉴스)
	13	트럼프 "北, 美타격할 핵무기 개발 못해"...中역할 비난도(연합뉴스)
		콘웨이 "트럼프, 북한에 조치 취할 것...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연합뉴스)
		안보리 제재위 "北 지난해 결의위반 의심사례 18건"(연합뉴스)
	14	유엔, 웹사이트로 北석탄 수출량 감시한다(연합뉴스)
		38노스 "北 금창리 미사일기지 보도, 근거 없어"(연합뉴스)
	미국무부 "北,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탑재능력 아직 못 갖춰"(연합뉴스)	
	IAEA 전관리 "北, '핵개발 완성' 도달 가능성"(연합뉴스)	
15	美전문가 "北, 핵탄두 장착 ICBM 보유에 5년 이상 걸려"(연합뉴스)	
16	미국무·국방, 중대한 북핵 위협 대비해 美핵억지력 개선(연합뉴스)	
	블링컨 미국무부 부장관, 작년 핵실험후 북한 핵전력 질적 향상(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 일자	보 도 내 용	수 행 자	비 고
1.1	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황병서, 최룡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리설주,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2017년 새해 신년사 발표		
1.5	평양 가방공장 방문	안정수, 조용원, 림준길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12. 31.

■ 김정은 올해 공식활동 132회 '최저'...2013년엔 212회(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올해 공식활동 횟수가 집권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31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자료와 연합뉴스의 북한 매체 보도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 151차례 공식활동을 벌이고 2013년에는 212차례를 기록해 정점을 찍었으나 2014년(172차례)과 2015년(153차례), 2016년(132차례) 3년 연속 하향곡선을 그렸음.
- 집권 5년 가운데 가장 왕성했던 2013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62%에 불과한 수준임.

■ 北 김정은,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 혁명절 축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31일 쿠바 혁명 58주년을 맞아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축전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가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며 “형제적 쿠바(쿠바)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언제나 굳은 연대성(연대성)을 보낸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추대된 ‘노동당 위원장’ 이외에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 등 3개의 공식직함을 축전에 기재함.

2017. 1. 1.

■ 北 김정은, 육성 신년사서 첫 양복차림...고개 숙여 인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양복 차림으로 신년사 낭독에 임해 눈길을 끄.
- 북한 조선중앙TV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이뤄진 김정은의 2017년 신년사 낭독 장면을 1일 낮 12시 30분(평양시 12시)부터 방영함.
- 김정은은 집권 후 첫 새해였던 2012년 아버지의 신년 공동사설 형식을 한 차례 따른 뒤 육성 발표 방식으로 돌아가 ‘할아버지 따라하기’라는 해석을 낳았음.

■ **北 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로 새해 첫 활동…리설주 동행(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공식 활동을 시작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새해 주체 106(2017)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고 보도함.
- 이 자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군의 북한 지도부가 총출동함.

■ **北김정은,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불러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사진 촬영에 나섬.
- 군(軍) 수산부문 열성자회의는 지난달 29일 평양에서 열림. 김정은 정권은 어업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이후 매년 연말 회의를 열고 있음.

■ **北김정은 신년사, 핵·미사일·남북관계·지력자강 방점(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새해 첫 날인 1일 예년처럼 조선중앙TV에 등장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함.
-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켓(미사일)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됐다”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과시함.
- 그는 또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사대매국 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실명 비난함.

■ **북한 김정은, 조총련 의장에 새해 축전(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새해를 맞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허종만 의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적대세력들의 압살책동이 첨예하고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총련이 조직건설에 커다란 전진을 이룩했다”며 “애국유산인 총련을 굳건히

수호한 총련 일군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힘.

- 조선 총련은 지난달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5주기를 맞아 중앙상임위원회 평의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음.

2017. 1. 5.

■ **가방공장 간 김정은…새해 첫 행보는 민생시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해 첫 공개활동으로 민생경제 행보를 택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5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평양가방공장이 연간 24만2천여개의 학생가방과 6만여개의 일반가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가방 생산기지로, 지난해 7월 초 평양시 통일거리에 착공됐다고 소개함.
- 이날 김정은의 시찰에는 안정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경공업부장), 조용원·림준길 당 중앙위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김수길 평양시당위원장과 공장 일꾼·종업원들이 이들을 맞이했다고 통신은 전함. 김정은은 이들과 기념사진도 찍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1. 3.

■ **北 전종수·안명국, 조평통 부위원장으로 승진(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사업을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부국장이었던 전종수와 안명국이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됨.
- 북한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 대한 각계 반향을 전하면서 이전까지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이었던 전종수와 안명국을 각각 ‘조평통 부위원장’이라고 호칭함.
- 앞서 북한은 지난해 6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통해 남북대화 때 우리측 통일부의 협상 파트너로 나섰던 조평통 서기국을 폐지하고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핵심 실무기구였던 조평통을 국가기구로 개편하였음.

2017. 1. 6.

■ **北 최룡해, 33개월만에 현장시찰…2인자 인정(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의 고위급 현장시찰에 해당하는 ‘현지료해’를 33개월 만에 재개해 눈길을 끌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자 2면에 “최룡해 동지가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여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현지료해하였다”며 2장의 컬러 사진과 함께 보도함.
- 노동신문은 “그는 연합기업소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혜산-삼지연 넓은 철길 건설장에 보내줄 중량레루(레일) 생산정형을 료해(파악)하였으며 생산적 양양을 일으키고 있는 이곳 노동계급을 고무해 주었다”고 현장방문 상황을 설명함.

■ 北 최룡해,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평양 출발(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니카라과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6일 북한 평양을 떠남.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측근인 최룡해는 특사로서 북한 대표단을 이끌 예정임.
- 최근 북한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장례식에 참석한 바 있음.

다. 공식행사

2017. 1. 3.

■ 北김정은, 무수단 발사 잇단 실패로 첫 전략군대회 연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무수단 미사일(북한명 ‘화성-10’) 발사 실험이 잇달아 실패하자 당초 작년 12월로 계획했던 ‘제1차 인민군 전략군대회’ 개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김정은은 전략군 사령관인 김락겸 대장에게 “무수단 발사가 성공하면 전략군대회를 크게 치르고 관계자들을 치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앞선 4월부터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여러 차례 실패하자 연기를 지시했다”고 전함.

2017. 1. 5.

■ 北평양서 ‘김정은 신년사 이행’ 군중대회…과업 철저 관철(연합뉴스)

- 북한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관철을 다짐하는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가 보도함.

-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후 “김정은 동지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가 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밝힘.
- 군중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이들 매체는 밝힘. 이밖에 최태복·김기남·오수용·곽범기·로두철 노동당 정치국 위원, 김수길 정치국 후보위원 겸 평양시당위원장, 리무영 부총리 겸 화학공업상 등이 주석단에 자리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7. 1. 4.

■ 北TV 신년공연에 ‘쿵푸팬더’…美애니캐릭터 대거 등장(연합뉴스)

- 북한 예술단의 신년 공연무대에 ‘쿵푸팬더’ 등 미국 애니메이션의 주제음악과 영상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었음.
- 북한 조선중앙TV는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이 지난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한 약 64분 분량의 새해맞이 공연을 3일 녹화방송함.
- 악단은 공연 중반부 ‘세계만화영화 음악뒤름’이라는 코너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음악 수십 곡을 배경영상과 함께 약 12분에 걸쳐 경음악으로 연주함.

2017. 1. 6.

■ 北 신포에 1만t급 잠수함 건조 가능한 독 건설(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함경남도 신포시에 있는 선박수리공장에 1만t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독(dock)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북한의 한 소식통은 RFA에 “2014년 1만t급의 잠수함을 만들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최근 신포 선박수리공장에서 기존에 있던 선박 건조대인 독을 확장했다”고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신포 선박수리공장에 설치된 1만t급 잠수함 건조용 독은 길이 180m, 폭 25m 규모임. 또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함경북도 청진 조선소에서 잠수함

을 생산한 경험을 가진 기술진과 우수한 제관공들이 가족들과 함께 신포 선박수리공장으로 갔다고 소식통은 설명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12. 31.

■ 수소탄·무수단·北신문 선정 올해의 뉴스 1/30이 핵 관련(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월 실시된 제4차 핵실험을 포함한 올해의 월별 주요뉴스 12개를 선정해 발표함.
- 노동신문은 31일자 2면에 ‘당의 령도따라(영도따라) 민족사적인 승리와 특대사변들을’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2016년이 5천 년 민족사에 없었던 대비약의 해, 전례 없는 격동의 세월이었다면서 매월 가장 관심을 끌었던 주요 뉴스 12개를 꼽았음.
- 신문은 “들려온다. 새해의 서막을 장쾌하게 열어제긴(열어젖힌) 첫 수소탄의 폭음이”라면서 지난 1월 6일 실시된 제4차 핵실험을 비롯해 장거리로켓 발사(2월), 여명 거리 건설신포(3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완공(4월), 노동당 제7차 대회(5월), 무수단 미사일(북한명 화성-10호) 발사(6월) 등을 사진과 함께 나열함.

2017. 1. 1.

■ 北, 신년사 통해 ‘남남갈등’ 유도·사대매국세력에 투쟁(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발표한 올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대화 개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과 제안을 생략한 대신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발언을 내놓아 올해 남북관계는 기존의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예년과 비슷하게 전체 신년사의 4분의 1 가량을 남북관계 부문에 할애했음.
- 김 위원장은 “우리는 민족의 근본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갈 것”이라며 “올해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원론적인 차원을 발언을 내놓았음.
- 2015년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내비친 데 이어 지난해 신년사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 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됨.

■ **北, 핵무장·재래전력 병행전략 의지…선제공격능력 부각(연합뉴스)**

- 북한이 새해에도 핵무장과 재래식 전력을 동시에 강화할 것임을 내비쳤음. 탄도미사일의 핵탄두 탑재 기술 확보 등 핵무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재래식 전력 보강에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임.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식의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여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져야 한다”면서 “전쟁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과 재래식 전력 병행 강화 의지가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대응 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에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함.

2017. 1. 2.

■ **北매체들 “김정은 신년사 높이 받들자” 주민 선동(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은 2일 일제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를 높이 받들자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나섬.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신년사는 2017년을 가장 의미깊은 민족사적인 사변들과 영웅적인 기적들로 빛내일(빛날) 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이라고 치켜세움.
- 사설은 그러면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새해 행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독려함.

■ **北선전매체, ‘김일성 中동북해방전쟁 지원’ 책자 소개(연합뉴스)**

- 북한의 선전 매체가 과거 김일성 주석이 유격대를 파견, 중국의 동북해방전쟁을 도왔다는 내용의 책자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음.
- 북한의 대외 선전용 잡지 ‘금수강산’은 1월호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중국 동북해

방전쟁을 도와'라는 책자가 편집 발행됐다면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

- 북한이 대외선전용 매체를 통해 김 주석의 70년 전 일화를 공개한 것은 과거 중국에 대한 공과 한때 잘나갔던 혈맹관계를 넘어서 내세워 대북제재 전선에서 중국을 떼어내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2017. 1. 3.

■ 北신문,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화적 환경(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가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자주, 평화, 친선을 강조함. 특히 평화적 대외 환경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음.
- 신문은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 리념(이념)에 충실할 것이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발전 시키고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신년사를 거론함.
- 신문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함.

2017. 1. 4.

■ 北, 연일 ‘신년사’ 이행 독려…“대북제재 돌파 의지”(연합뉴스)

- 북한이 연일 관영매체를 동원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 제시한 과업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1면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을 올해의 선차적인 투쟁과업으로 제시하시었다”며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해”라고 선전함.

2017. 1. 5.

■ 北, 김정은 신년사 이후 연일 대남 평화공세(연합뉴스)

-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이후 관영 매체를 동원해 연일 대남 평화공세를 펴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 북남관계의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 문제”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은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 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함.

■ 북매체,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핵타격 수단 있어(연합뉴스)

- 북한 관영 매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언급됐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는 표현을 되풀이하며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핵 타격 수단이 있다”고 공언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5일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는 천만번 정당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힘.
- 논평은 “대륙간탄도로켓(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전략핵무력 부문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들은 우리에게 미국이 강요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대응해줄 수 있는 위력한 전략핵타격 수단이 있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 주었다”고 밝힘.

2017. 1. 6.

■ 노동신문, 김부자 찬양문구에 ‘수령·영도자’ 경칭 추가(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새해 들어 좌측 상단에 고정된 김일성·김정일 부자 찬양 문구를 변경함.
- 신문은 지난해 연말까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올해 들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로 바꾼 것으로 나타남.
- 김일성과 김정일 앞에 각각 ‘수령’과 ‘영도자’라는 경칭을 붙이고, 김일성 앞에만 붙었던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김정일에게도 붙인 것이 특징임.

■ 北 4차 핵실험 1주년…첫 수소탄 시험 완전성공한 날(연합뉴스)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1주년 되는 날인 6일 “첫 수소탄 시험이 완전 성공된 때로부터 한 돌이 되는 의미깊은 날”이라고 선전함.
- 북한 관영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늘은 조선(북한) 노동당의

-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완전 성공된 때로부터 한 돌이 되는 의의깊은 날”이라며 과학기술전당 처장 3명의 육성 인터뷰를 내보냄.
- 매체는 4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면서 “우리 공화국은 세계의 악을 다스리고 부정을 짓뭇개버릴 수 있는 무진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2017. 1. 5.

■ 北, 군수기지 자강도 주민까지 외화벌이 파견(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할 인력이 부족하자 군수산업 시설이 많은 자강도 주민까지 외화벌이 인력으로 중국에 파견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군수산업이 밀집한 자강도를 특별지역으로 설정하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의 타 지역 여행은 물론 외부인의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는 등 평양보다 경비를 강화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에는 자강도 주민들까지 외화벌이 인력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짐.

나. 주요조치

2017. 1. 5.

■ 北, NLL인접 강령에 농수산물 가공단지…해외투자 유치(연합뉴스)

-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황해남도 강령군에 조성하는 농·수산물 가공단지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함.
- 북한 대외선전용 사이트인 ‘내나라’는 ‘조선녹색위업연구개발협회’ 명의의 ‘강령 국제녹색시범지대 개발 총계획안’을 게재한 것으로 5일 확인됨.
- 지난달 발행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는 “이전의 원료, 자원 수출 위주의 무역으로부터 2차·3차 가공품, 완제품 수출 위주의 무역을 진행”할 필요성을 거론하는 논문을 실기도 함.

다. 경제 상황

2017. 1. 4.

■ 김정은생일 도루묵 선물 소문 '말짱 도루묵'...가격만 폭락(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생일(1월8일)에 도루묵을 선물로 준다는 소문이 나돌자 도루묵 시장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북한에서 옮겨올 어획량이 급증한 도루묵을 최고지도자의 생일을 맞아 주민들에게 선물로 배급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도루묵 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올해부터 김정은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하는 노동당의 지시가 내려오면서 일반 가정들에 선물 도루메기(도루묵)를 공급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값이 하락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1. 4.

■ 中, 북한 석탄수입 재개한 듯·北선박 다수 포착(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북한산 석탄수입 일시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수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함.
-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인용, 지난 1~3일 중국 대표 석탄 수입·수출항인 친황다오(秦皇島) 항구로부터 약 10km 떨어진 지점에서 금릉5호, 금산호, 원산2호 등 북한 선박 3척이 머무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힘.
-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는 북한산 석탄의 수출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 北, 가공품·서비스 수출 확대해야·제재우회 시도(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제재로 석탄 등 광물 수출길이 막히자 가공품·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한 외화벌이 '우회로' 마련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연합뉴스가 4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6년 4호(지난해 12월 10일 발행)에는 '대외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중요 요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림.

- 논문은 외화벌이의 중요성을 지적한 뒤 ‘무역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가공품 수출과 기술무역, 봉사(서비스) 무역’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함.
- 북한이 스스로 자원 중심의 무역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광물을 대체할 수출품목 확보에 고심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줌.

■ **日경찰, ‘싱가포르 우회 대북수출’ 적발…수사 중(연합뉴스)**

- 일본 경찰 당국은 북한측 남성이 싱가포르에 위장기업을 설립해 북한에 일본 제품을 수출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함.
- 현재 대북제재로 북한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
- 해당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중국 다롄(大連)의 북한 기업에 재수출돼 북한 남포에서 하역된 것으로 알려짐.

2017. 1. 6.

■ **유엔제재 물린 北, 中·대만기업과 위화도 공단조성 합의(연합뉴스)**

- 중국과 대만 등의 기업이 북한의 위화도 경제특구에 60억위안(약 1조466억원)을 출자해 공단을 조성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함.
- 신문은 북수의 북중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이런 계획이 실현되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있어서는 대규모 외화획득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요미우리는 “지난해 11월말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직후 외자도입을 관할하는 북한 대외경제성 간부가 중국 단둥(丹東)을 방문해 위화도 공단추진 방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12. 31.

■ **北, 차량번호판 중국식 교체…대중관계 등 다중포석(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차량번호판을 중국과 유사한 형태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림.
- 평안북도 신의주의 한 소식통은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이)

차량번호판을 교체하고 있다”면서 “중국 차량의 번호판과 비슷해 멀리서 보면 중국 차인지 조선(북한) 차인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기존 북한 차량번호판은 흰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제작됐으나 새로 교체 중인 번호판은 중국 동북지역의 차량번호판처럼 파란색 바탕에 글씨가 입체적으로 돋보이도록 만들었음.

2017. 1. 2.

■ 北, 1~3일 특별경비기간 설정...적대분자 소탕 지시(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2017년 새해의 첫 사흘을 특별경비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김일성·김정일 사적물을 노리는 적대 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짐.
- 북수의 대북 소식통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명의의 (특별경비기간 설정에 관한) 통보서가 국가안전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을 통해 전체 주민들에게 하달됐다”고 말함.
- 소식통은 북한은 3일간 휴식을 정한 양력설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있는 사적관, 박물관 등 중요 건물에 대한 보안 사업을 진행하며 적대 분자를 감시하는 한편, 사소한 것이라도 나타나면 무자비하게 소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함.

2017. 1. 4.

■ 지난달 북 당국 식량배급 1년 중 최대(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은 지난 12월에 주민 한 명당 하루 40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실케 버 아시아지역 담당 대변인이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북한 당국의 식량배급은 올해 1월에서 3월까지의 성인 1명 당 하루 370g, 4월에서 6월까지의 하루 360g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의 300g 수준으로 떨어지며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음.
- 지난해 10월부터 올들어 최대 규모인 380g으로 증가했으며 2016년 마지막 달인 12월엔 이보다 20g 증가한 1인당 하루 평균 400g의 식량이 공공배급체계 대상 북한 주민에 배급됨.

2017. 1. 5.

■ **北주민 카드 사용 증가·지방에 ATM 추가 설치(연합뉴스)**

- 북한에서 송금과 일부 결제가 가능한 직불카드 발급이 늘면서 각 지역 은행에 ATM(자동입출금기)을 추가 설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5일 보도함.
- 함경북도 회령시의 소식통은 아시아프레스에 “청진시를 비롯한 대도시에 구역 은행마다 ATM 기계가 설치됐다”면서 “현재 회령시는 ATM 기계가 한 대뿐이지만 인기가 많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함.
- 현재 지방 은행에서 발급되는 카드는 ‘나래’와 ‘전승’ 두 종류이며, 이름과 집 주소, 집 전화나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북한 돈 1만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아시아프레스는 설명함.

2017. 1. 6.

■ **북한 작년 식량 배급량 유엔 권장량 절반 남짓(연합뉴스)**

- 북한이 작년 주민들에게 배급한 하루 평균 식량이 유엔 권장량의 절반 남짓한 59% 수준이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함.
- VOA가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받은 북한 식량 배급량 자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해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354g의 식량을 배급한 것으로 나타남.
- 실케 버 WFP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부분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결핍된 식단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고 전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1. 1.

■ **北, 대규모 불꽃놀이로 새해 출발(연합뉴스)**

- 북한은 1일 새벽 0시(한국시간 0시 30분) 화려한 불꽃놀이를 벌이며 축제 분위기로 새해를 시작함.
- 조선중앙TV는 이날 평양 대동강변 주체사상탑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생중계로 내보냄.
- 북한이 대규모 불꽃놀이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사회 분위기를 띄우고 주민들의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北 지방시장에 주차장·주민들 차 타고 장 보러 다녀(연합뉴스)**

-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가장 큰 규모인 채하시장 옆에서 주차장이 포착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이날 RFA에 출연, 미국 상업위성이 지난해 10월 7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힘.
- 평양에는 이미 시간당 요금을 받는 주차장도 있으며, 주유소도 늘고 있다고 RFA는 덧붙임.

2017. 1. 4.

■ **FAO “北, 동아시아 최대 삼림 훼손국…사막화 심각”(연합뉴스)**

-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삼림 훼손 속도가 가장 빨라 사막화 위험이 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4일 보도함.
- FAO는 최근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삼림과 임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삼림 훼손이 심각해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경고함.
- 보고서는 현재 북한 삼림의 사막화가 31%로 동아시아에서 몽골과 중국 다음으로 빠르다고 지적함.

2017. 1. 6.

■ **北부유층, 6천달러씩 들여 살림집 한국식으로 리모델링(연합뉴스)**

- 북한에서 최근 한국 드라마를 통한 한류(韓流)열풍이 확산하면서 살림집을 한국식으로 리모델링하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가 6일 보도함.

- 평안남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최근 평양은 물론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 살림집 내부를 한국식으로 변경하는 돈주(신흥부유층)들이 늘고 있다”고 전함.
- 이어 소식통은 이들이 한국식 살림집을 선호하게 된 것은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크라며 “외부에서 밀매한 한국의 주택 카탈로그도 한몫을 차지한다”고 말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1. 2.

■ 美 ‘ICBM 마감단계’ 주장 김정은에 “대가 따를 것” 경고(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함.
- 애나 리치-앨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힘.
- 리치-앨런 대변인은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ICBM 개발 및 시험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2017. 1. 3.

■ 트럼프 “北, 美타격할 핵무기 개발 못해”...中역할 비난도(연합뉴스)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함.
-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함.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막겠다는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북핵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콘웨이 “트럼프, 북한에 조치 취할 것..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연합뉴스)**

- 차기 백악관 고문 내정자인 켈리엔 콘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맞서 행동할 것이라고 밝힘.
- 2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한 콘웨이는 “트럼프가 어떻게 감정은을 막을 것이냐”는 진행자 크리스 매슈스의 질문에 “이 문제에 집중해 안보 관계자들과 계획을 짜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함.
-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을 비난함.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점을 강조함. 커비 대변인은 “모든 국가가 모든 수단을 활용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힘.

2017. 1. 6.

■ **미국무-국방, 중대한 북핵 위협 대비해 핵억지력 개선(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에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가 직면할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북핵 문제를 꼽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당부함.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 억지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힘.
- 케리 장관은 이날 내각과 직원들에게 보낸 ‘고별 메모’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the gravest) 위협에 속해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카터 장관 역시 “북핵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심각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우리의 핵과 재래식 무기 억지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힘.

■ **블링컨 미국무부 부장관, 작년 핵실험후 북한 핵전력 질적 향상(연합뉴스)**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해 북한이 잇따라 핵실험을 하면서 핵전력이 “질적으로 향상”했다고 평가함.
- AP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6차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힘.

- 이날 한국, 미국, 일본 3국 외교차관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고립·압박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3국 협력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7. 1. 1.

■ 北, ‘김정은에 연하장’ 시진핑보다 푸틴 먼저 호명(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낸 각국 지도자들을 열거하며 올해도 러시아를 중국보다 먼저 호명한 것으로 1일 나타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기사에서 “(김정은에게)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 지도자들, 각계 인사들이 연하장을 보내어왔다”며 “러시아 연방 대통령,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등의 순으로 이름 없이 직책만 언급함.
- 이는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과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반면, 북·러 관계는 각종 교류를 통해 가까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 4.

■ 유엔, 웹사이트로 北석탄 수출량 감시한다(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최근 북한산 석탄 수출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함.
- 제재위원회는 이와 같은 집계를 토대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일정 수위(75%,

- 90%, 95%)에 도달하면 상한을 넘기지 않도록 단계별 경보를 발동하게 됨.
- 다만 사이트에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담기지 않았는데 이는 제재 결의가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량을 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직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2017. 1. 3.

■ 안보리 제재위 “北 지난해 결의위반 의심사례 18건”(연합뉴스)

-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위반 의심사례가 총 1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A4 용지 7장 분량의 2016년 연례보고서에서 73개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대북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받았고, 3개국은 1718호를 포함 나머지 4개의 대북결의 관련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함.
-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18건 가운데 15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관련돼 있고, 나머지 3건은 북한으로부터 출항한 결의위반 의심 선박들을 차단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위원회는 전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1. 1.

■ 北 김정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마감 단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과시함.
- 김정은은 “지난해 주체 조선의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져 우리 조국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며 이같이 밝힘.
- 김정은이 육성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를 언급함에 따라 북한은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2017. 1. 2.

■ **北 SLBM, 1t 핵탄두 탑재시 남한 전역 사정권(연합뉴스)**

- 북한이 한반도 안보 정세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판도를 바꿀 무기)로 불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핵탄두 중량을 1t으로 하더라도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서방 전문가들은 추정함.
- (사)한국학술연구원의 계간 영문 학술지 ‘코리아옵서버’는 12월호(북핵 특집)에 외국 군사전문가들이 분석한 ‘북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소개한 것으로 2일 파악됨.
- 논문 공동 저자인 시어도어 포스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와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북한의 고체연료 SLBM인 KN-11(북극성)이 1t 중량의 탄두를 약 600km, 1.5t짜리 탄두를 약 450km 각각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 **軍, 北 ICBM 관련 특이동향 없어…기술수준 평가 일리(연합뉴스)**

- 우리 군 당국은 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특별한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힘.
- 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발사 동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군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현재까지 특이동향은 없다”고 말함.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과시하고 나서면서 조만간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2017. 1. 4.

■ **38노스 “北 금창리 미사일기지 보도, 근거 없어”(연합뉴스)**

- 최근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금창리 인근 산악지대에서 미사일 기지로 추정되는 시설이 발견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4일 밝힘.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 올소스 애널리시스 연구원은 과거의 위성영상과 북한의 공개된 미사일 시설, 시험발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언론이 보도한 금창리 주변 시설은 군사적으로 볼 때 큰 의미를 둘 만한 것이 아니다”면서 “미사일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미사일 시설 연관성을 부인함.

■ 미국무부 “北,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탑재능력 아직 못 갖춰”(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현황과 관련,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 미국은 만일의 경우 북한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더라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다고 밝힘.
- 미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시점에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고 말함.

■ IAEA 전관리 “北, ‘핵개발 완성’ 도달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개발 완성'의 이정표에 이미 도달했을 수 있다는 핵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음.
-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인도,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5차례 핵실험을 한 뒤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이 (핵개발 완성이라는) 중요한 이정표에 다가섰거나 이미 도달했을 것”이라고 주장함.
- 하이노넨 전 차장은 “(지난해 9월 실시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20~30킬로톤(kt)로 추정되고 이는 상당한 위력”이라고 강조함.

2017. 1. 5.

■美전문가 “北, 핵탄두 장착 ICBM 보유에 5년 이상 걸려”(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을 보유하려면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됨.
- 미국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해 위성발사 로켓에 비견될 만한 대형 군사용 로켓을 실험할 가능성도 있지만, 첫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면서 “2~3년 뒤면 ICBM을 보유할 수 있지만, 시험발사용이 아닌 무기화하는데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힘.

- 맥도웰 박사는 이어 북한이 ICBM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무수단 미사일을 북한의 최대 사정거리 미사일로 봐야 한다”며 “(미국령) 괌까지 닿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던 무수단이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혹은 그보다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2	한민구, 한미 국방장관회담 빠를수록 좋아(연합뉴스)	
	1.4	윤병세, 北도발 대응 위한 한미간 조율 강화할 것(연합뉴스)	
	1.5	주미대사, 트럼프타워서 풀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면담(연합뉴스)	
	1.6	한미일, 북한 비핵화 위해 대북 고립·압박노력 지속 강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1		中 '사드 보복' 거세지나...한국산 배터리 탑재차량 보조금 배제(연합뉴스) 사드·북핵문제, 中관영매체들 '2016년 국제뉴스 톱10'에 포함(연합뉴스)
	1.2	'한국 해석서 조업 후 오리발' 중국 어선 2척 나포(연합뉴스)	中 왕이, 올해 핵심 외교방침으로 "사드 반대" 거론(연합뉴스)
	1.3	외교부, 野의원 방중에 "사드 안보사안"...우회적 불만도로(연합뉴스)	중국, 한국 야당의원 방문 환영...사드 반대 불변(연합뉴스)
	1.5	외교부, 추귀홍 중국대사 초치...'사드' 관련 입장 전달(연합뉴스)	中외교부, '왕이부장·韓야당 의원단 회동' 홈페이지에 소개(연합뉴스) 中외교부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대" 재차 강조...한중 공방 격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한일 관계	12.31		日, 2월 중순 한중일 정상회의 도쿄 개최 타진(연합뉴스)
	1.3	외교부, '소녀상 설치=보이스피싱' 日 주장에 "코멘트 사항 아냐"(연합뉴스)	

한중일+아세안, 독자 통화스와프 960억 달러로 확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1.6	정부, '소녀상' 日조치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연합뉴스)	日, 부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도저히 허용 못 해(연합뉴스) 日 부산소녀상 항의 주한 일본대사부 산출영사 귀국조치(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2	中 항모 새해 남중국해 훈련에 미국도 항모전단 긴급발진(연합뉴스)	
		美, 中 미사일 요격 위해 남중국해에 팔라딘 자주포 배치 검토(연합뉴스)	
	1.4		中매체, 트럼프 '북핵 책임론'에 반박 "생떼쓰지 말라"(연합뉴스)
	1.5	케리 美국무, 왕이 中외교부장과 통화서 '하나의 중국' 확인(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5		日, 트럼프 조기 방일 요청...이달 하순 아베 방미 최종 조율(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2.31		러 외무부, 美 제재로 러 외교관·가족 포함 96명 미국 떠나야(연합뉴스)
	1.2		美대선개입 추방제재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등 96명 귀국(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1	中, 일본 대륙붕·EEZ 주변 해저 중국어 명명 신청	
	1.5		日, 센카쿠서 中과 충돌사태 대비 방위 전략 마련(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1.1	시진핑-푸틴, 새해 축전...국제현안 공조 강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1.5		러일 쿠릴 4개섬 공동경제활동 협의 빠져...러, 당장은 어렵다(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1. 2.

■ 한민구, 한미 국방장관회담 빠른수록 좋아(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면 되도록 조속히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겠다고 밝힘.
- 한 장관은 이날 신년인사차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새해에도 (한미) 동맹현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통상 정상 간 만남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안보관련 주요 방향이 정해졌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제한돼 따로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 한국 장관이 일찍 와야 될 것이라 언급하는데 이에 공감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2017. 1. 4.

■ 윤병세, 北도발 대응 위한 한미간 조율 강화할 것(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북한이 미 행정부 교체기를 틈타 전략적 도발을 기도하는 것을 저지하고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간 사전 조율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힘.
- 윤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일간지 워싱턴타임즈 대표단과의 접견에서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역지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윤 장관은 그러면서 “한미 동맹 현안, 북한·북핵 문제 등 협의를 위해 킬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의 취임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2017. 1. 5.

■ 주미대사, 트럼프타워서 열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면담(연합뉴스)

- 안호영 주미국 대사는 현지시간으로 4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차기 트럼프 미국

-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면담한 것으로 전해짐.
-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안 대사가 트럼프타워에서 주재국 대사로서 플린 내정자를 만나 주요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이어 “그동안 우리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 측과 계속해온 아웃리치(접촉)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2017. 1. 6.

■ 한미일, 북한 비핵화 위해 대북 고립-압박노력 지속 강화(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은 6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고립 및 압박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함.
-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제6차 외교차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국 협력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함.
- 3국 외교차관은 공동설명서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2321호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3국은 공동의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외교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통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공고히 했다. 또 북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나갈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했다”고 평가함.

나. 한·중 관계

2017. 1. 1.

■ 中 ‘사드 보복’ 거세지나…한국산 배터리 탑재차량 보조금 배제(연합뉴스)

- 중국이 춘제(春節·음력설)를 앞두고 한국행 전세기 운항 연장을 불허한 데 이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제재를 가함. 이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큰 불만을 표시해온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주목됨.
- 중국이 한류 연예인의 중국 방송 등의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에 이어 올해부터는 관광분야는 물론 제조업으로까지 제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음.
- 베이징 소식통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은 변한 적이 없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을 옥죄는 느낌”이라면서 “이는 한국의 대선이 벌어지는 올해에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함.

■ **사드·북핵문제, 中관영매체들 ‘2016년 국제뉴스 톱10’에 포함(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벌인 갈등이 중국 관영 매체들이 선정한 ‘2016년 10대 국제뉴스’에 포함됨. 북한의 핵 실험 또한 관영 매체들이 주목한 국제뉴스였음.
- 1일 관영 신화통신은 10대 국제뉴스에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 증가’를 올리며 북한은 국제 사회 반대에도 지난해 1월과 9월에 핵 실험을 강행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발사 활동을 여러 차례 실시해 동북아 정세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함.
- 이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수차례 군사 합동 훈련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 사드 배치 관련 업무를 전격 가동해 동북아 지역 안보와 전략 균형을 훼손했다고 주장함.

2017. 1. 2.

■ **中 왕이, 올해 핵심 외교방침으로 “사드반대” 거론(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일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를 올해 중국 외교방향의 핵심중 하나로 천명함.
- 왕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굳건히 추진해나가되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체제 전환이라는 투트랙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한국 해역서 조업 후 오리발’ 중국 어선 2척 나포(연합뉴스)**

-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한국 해역에서 조업하고도 중국 쪽에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어획량을 속인 혐의(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다렌 선적 쌍타망 어선인 요2호(189t)와 요3호(〃) 등 2척을 나포함.
- 이들 중국어선은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72km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65km)에서 갈치와 멸치 등 9천588kg을 잡은 뒤 조업일지에는 중국해역에서 4만2천kg을 어획했다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제주해경은 검거 해상에서 중국어선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2017. 1. 3.

■ **중국, 한국 야당의원 방문 환영…사드 반대 불변(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한국 야당의원들의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함.
- 이는 사드 배치 재검토 입장을 갖고 있는 야당의원들을 통해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임.
- 경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4일 방중하는 것에 대해 “중국 측은 한-중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 각계와 소통 및 교류를 유지하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민주당 국회 의원단의 방중을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측이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힘.

■ **외교부, 野의원 방중에 “사드 안보사안”…우회적 불만토로(연합뉴스)**

- 외교부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오는 4일 중국을 방문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방어조치”라며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여야 간 구분 없이 공통의 인식과 책임감을 갖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하는 엄중한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함.
- 조 대변인이 ‘공통된 인식과 책임감’, ‘국가 안보사안’을 강조한 것은 사드 배치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야당 정치인들의 이번 방문이 중국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됨.

2017. 1. 5.

■ **외교부, 추귀홍 중국대사 초치…‘사드’ 관련 입장 전달(연합뉴스)**

-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의 잇단 보복성 조치로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함.
-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비공개로 불러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상황 등 양국간 여러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 외교부는 특히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최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등 보복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中외교부, ‘왕이부장·韓야당 의원단 회동’ 홈페이지에 소개(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가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동을 상세하게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음.
- 특히, 왕이 부장의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입장과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한 점도 부각함.
- 중국 외교부는 5일 홈페이지에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민주당 의원대표단을 만났다’는 제하로 왕이 부장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실었음.

■ **中외교부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대” 재차 강조…한중 공방 격화(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5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배치 프로세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 야당 의원단의 방중 이틀째인 이날 우리 정부가 “사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히자, 중국 외교부가 다시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을 내놓았음.
- 경쌍(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사드 계획대로 추진’ 발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질문 받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엄중한 우려와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다”면서 “유관 당국(한국·미국)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힘.

다. 한·일 관계

2016. 12. 31.

■ **日, 2월 중순 한중일 정상회의 도쿄 개최 타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연내 개최가 무산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내년 2월 10일 전후에 도쿄(東京)에서 여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 측에 타진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가결이 이뤄진 직후인 이달 중순 이렇게 제안함.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중국 측은 “한국의 국내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며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2017. 1. 3.

■ 외교부, ‘소녀상 설치=보이스피싱’ 日주장에 “코멘트 사항 아냐”(연합뉴스)

- 외교부는 3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이 최근 세워진 데 대해 일본 측에서 “보이스피싱(입금사기)과 같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저희가 일일이 코멘트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함.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함.
- 정부의 반응은 소녀상 문제로 한일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풀이됨.

■ 한중일+아세안, 독자 통화스와프 960억 달러로 확대(연합뉴스)

-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올해 각국 합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 규모가 기존 720억 달러(약 87조원)에서 960억 달러(116조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니혼게이지신문이 3일 전함.
- 신문은 오는 5월 요코하마(横浜)시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한중일과 아세안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위기 시 다국가간 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확충에 합의할 것이라고 이같이 전함.
- 이는 아시아 국가가 ‘통화방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아시아 통화스와프협정을 지렛대로 삼아 관계를 심화해 금융위기 방지 태세를 굳건히 하려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함.

2017. 1. 6.

■ 日, 부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도저히 허용 못 해(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도저히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또다시 철거를 요구함.
-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스키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 앞서 임성남 외교

부 제1차관과 회담하고 소녀상을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함.

-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1시간여 회담 대부분을 소녀상 문제에 매달렸다”며 “계속해서 한국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해 회담 내내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보임.

■ 日 부산소녀상 항의 주한 일본대사 부산총영사 귀국조치(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6일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데 항의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시민단체가 부산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조치를 발표함.
-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 일시 귀국 이외에도 현재 양국 간 진행 중인 한일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를 연기하기로 했음.

■ 정부, ‘소녀상’ 日조치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연합뉴스)

- 정부는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임시 귀국시키는 등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양국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양국 정부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함.
- 일본은 아울러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등의 방침도 발표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1. 2.

■ **中 항모 새해 남중국해 훈련에 미국도 항모전단 긴급발진(연합뉴스)**

- 중국의 첫 항공모함 라오닝(遼寧)함 전단이 아시아 해역에서 잇따라 무력과시에 나서자 미국도 이 해역에 항모 전단을 긴급 발진시킴.
- 중국 신랑(新浪) 군사망은 동태평양에 배치돼 있던 미 해군 제3함대 소속의 칼 빈슨호 제1항모 전단이 오는 5~6일께 아시아-태평양 해역으로 출발하게 될 예정이라고 2일 보도함.
- 칼빈슨호의 이번 임무 지역엔 서아시아나 중동 해역은 포함돼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주로 남중국해, 서태평양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미국과 중국의 항모가 남중국해에서 대치 국면을 조성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앞서 양위쥘(楊宇軍) 국방부 대변인은 구랍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남중국해에서 라오닝함의 동계훈련 실시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편대의 이번 훈련은 서태평양의 유관 해역과 함께 '기타 유관근해'도 포함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음.

■ **美, 中 미사일 요격 위해 남중국해에 팔라딘 자주포 배치 검토(연합뉴스)**

- 1일(현지시간) 미 군사 안보 전문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육군은 로켓이나 순항미사일 요격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기동성이 뛰어난 M-109 팔라딘 자주포나 155mm M777 견인곡사포 부대를 남중국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음.
- 실제로 미 정찰위성이 촬영한 사진 판독 결과, 중국은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우디 섬(중국명 융싱다오<永興島>) 등 3개 인공섬에 건설한 군용 비행장 방어를 위해 1개 대대 분량의 SA-21 장거리 대공미사일 체계 등 최대 500개 가량의 최신예 대공미사일을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하이난도(海南島)에 반입한 사실이 드러남.

2017. 1. 4.

■ **中매체, 트럼프 '북핵 책임론'에 반박 "생떼쓰지 말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 문제를 중국이 방관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하자 중국 정부에 이어 관영 언론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4일 '트럼프

- 가 북핵 문제로 중국을 또 협박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평(社評)에서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매우 어리석고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맹비난함.
- 신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의 군사압력으로 인한 정권 전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2017. 1. 5.

■ **케리 美국무, 왕이 中외교부장과 통화서 ‘하나의 중국’ 확인(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했다고 5일 밝힘.
- 중국 외교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의 전화통화에서 케리 국무장관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함.
- 케리 국무장관은 미중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양국간 체결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 미국 양당의 공동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성명은 소개함.

나. 미·일 관계

2017. 1. 5.

■ **日, 트럼프 조기 방일 요청...이달 하순 아베 방미 최종 조율(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취임 후 조기에 일본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
-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일본 총리 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팀의 크리스 콜린스 공화당 하원의원과 만나 이런 입장을 전함.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인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해 그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짐.

다. 미·러 관계

2016. 12. 31.

■ **러 외무부, 美 제재로 러 외교관 가족 포함 96명 미국 떠나야(연합뉴스)**

-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의혹에 따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對)러

- 시아 제재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러시아 외교관과 그 가족이 96명이나 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자국 외교관 추방 조치와 관련 이같이 전하면서 “미국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한 외교관 중엔 불과 2달 전에 미국에 온 사람도 있다”면서 “그들이 어떻게 올해 봄 무렵에 미국 대선 과정에 기술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함.
 - 자하로바는 또 “러시아가 오랜 노력 끝에 성사시킨 시리아 휴전 합의를 발표한 29일에 미국은 러시아 외교관 추방 발표를 했다”며 “미국은 외교 정책 실패에 대해 러시아에 복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2017. 1. 2.

■ 美대선개입 추방제재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등 96명 귀국(연합뉴스)

- 러시아의 미국 대선 해킹 개입 의혹과 관련한 ‘오바마 행정부’의 보복 제재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된 러시아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외교관 추방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부가 지난달 29일 미 대선 기간의 민주당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러시아를 지목해 강력한 대러 보복 조치를 단행한 데 따른 것임.
- 미국 정부는 자국에 주재한 러시아 외교관 35명 추방, 미국 내 러시아 공관 시설 2곳 폐쇄 등 해킹 관련 기관·개인 경제제재를 골자로 한 대(對) 러시아 제재안을 내놓았음.
- 미국의 조치에 러시아도 보복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외교관을 1명도 추방하지 않겠다”고 밝힘.

라. 중·일 관계

2017. 1. 1.

■ 中, 일본 대륙붕·EEZ 주변 해저 중국어 명명 신청

- 중국 정부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 주변 해저지형을 조사해 국제수로기구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 중국어로 지명 등재 신청을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전함.

- 신문은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중국의 해양권익 확대 움직임이 해상뿐 아니라 해저에서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함.
- 요미우리는 “이런 해역을 조사할 경우에는 중복을 피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국에 상세한 계획을 제출하고 사전 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이런 절차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덧붙임.

2017. 1. 5.

■ 日, 센카쿠서 中과 충돌사태 대비 방위전략 마련(연합뉴스)

-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중국어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에서 충돌사태 발생 시 자위대 대처 방침을 규정한 종합방위전략을 마련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의 어업 감시선의 우발적 충돌, 중국 해군의 함정 전개, 중국 공수부대의 센카쿠 상륙 등을 가정한 방위전략을 올해 여름까지 마련할 계획임.
- 이에 대해 일본은 사태 발생 시 지대함미사일을 활용한 견제 방안, 전투기와 호위함에 의한 사격, 자위대 상륙 작전 등을 규정할 계획임.

마. 중·러 관계

2017. 1. 1.

■ 시진핑-푸틴, 새해 축전...국제현안 공조 강화(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로 새해 축전을 보내 국제현안에 공조를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일 보도함.
- 시 주석은 전날 푸틴 대통령에 보낸 축전에서 새해 국제현안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밀접하게 추진해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 푸틴 대통령도 지난해 세계와 지역의 중대문제 해결에 상호협력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면서 새해 양국이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을 이롭게 하고 국제 안전과 안정에 공헌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바. 일·러 관계

2017. 1. 5.

■ 러일 쿠릴 4개섬 공동경제활동 협의 빠각...러, 당장은 어렵다(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을 들여온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의 러일 공동경제활동 협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의 성급한 기대와 달리 파트너인 러시아가 협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임.
- 4일 NHK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경제활동에 대해 “섬이 러시아 주권 하에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해당 지역 주권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 때문에 “협회가 당장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방송에 밝힘.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4	ICC, 탈북단체 제출 北인권 증언기록 적절히 검토할것(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1.5	인권위, 국내의 최초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발간(연합뉴스) 통일부, 탈북민 대상 北인권실태 조사 본격 착수(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3	작년 한국행 탈북민 1천414명...김정은 집권 후 첫 실질적 증가(연합뉴스)
대북지원	1.5	WFP 지난해 대북 식량지원, 20년 만에 최저(미국의소리)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 4.

■ ICC, 탈북단체 제출 北인권 증언기록 적절히 검토할것(연합뉴스)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국내 탈북단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처벌과 함께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증언기록을 제출한 것에 대해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리 단체가 지난해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를 찾아 인권유린 책임자인 김정은의 처벌을 요구하며 인권증언 기록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전날 답신이 왔다”고 밝힘.
- 이 단체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 인권탄압에 동원됐던 가해자 10명의 증언을 모아 작년 12월 23일 ICC에 제출하면서 최고책임자인 김정은의 처벌을 요구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1. 5.

■ 인권위, 국내외 최초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발간(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외 북한 인권 연구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영 북한인권 용어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힘.
- 오랫동안 분단된 탓에 남북 간 용어가 다른 경우가 많고, 통일된 용어가 없어 통·번역할 때도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인권위는 이 용어집을 국내·외 북한 인권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포하고 향후 파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게시할 계획임.

■ 통일부, 탈북민 대상 北인권실태 조사 본격 착수(연합뉴스)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오는 9일부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힘.

-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작년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1. 3.

■작년 한국행 탈북민 1천414명…김정은 집권 후 첫 실질적 증가(연합뉴스)

-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1천414명(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음.
- 2009년 2천914명까지 늘었던 탈북민은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 및 탈북 처벌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 2천706명, 2012년 1천502명으로 급감했고, 2013년 1천514명으로 보합세를 보이다 2014년 1천397명, 2015년 1천27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탈북민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가 처음임.
- 특히 올해 들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층과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이 크게 늘었음.

5. 대북지원

2017. 1. 5.

■WFP 지난해 대북 식량지원, 20년 만에 최저(미국의소리)

- 세계식량계획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의 실케 버 대변인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2월 함경북도수재민을 포함해 북한 취약계층 68만여 명에게 2천952t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힘.
-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을 모두 합하면 2만4천468t으로, 1996년 이후 20년 사이에 가장 적은 규모임.
-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이 감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